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 예배  
이사야 9:6-7  
2025년 12월 14일 오전 11시

## 메시아의 나라

<주여 도우소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특이한 것은 메시아가 아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여러분, 연약한 아기보다 강인한 청년으로 오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에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이라”(히 2:17).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아 지셔야만 했습니다. 아기로 오셔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거쳐 성인이 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여하튼 메시아는 아기로 오시지만,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로써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성육신하신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다스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 메시아의 나라는 큰 기쁨과 넘치는 즐거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사 9:3).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잘 모릅니다. 허나 땀 흘려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점에서 월급날의 즐거움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메시아의 나라 – 즐거움과 평강의 나라

또한 메시아의 나라에는 탈취물을 나눌 때와 같은 즐거움도 있습니다. 성서 시대의 전쟁은 대부분 약탈을 목적으로 한 전쟁입니다. 승리한 후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시 119:162). 전리품을 얻고서 좋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에는 이러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의 이유에 대해 이사야 9 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사 9:4). 압제자의 명예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300 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이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메시아께서 압제자를 꺾음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둘째, 메시아의 나라는 평화가 끝없이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사 9:7a).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모든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상태, 곧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회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평강을 말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와 평강”. 평강이 먼저가 아니라, 정사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다스림이 있을 때만 참된 평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 강한 무기와 더 강한 억제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평강은 적을 눌러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왕이시며,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에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의 없는 평강은 침묵일 뿐이고, 공의 없는 평강은 억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곧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사 9:7b).

셋째, 메시아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법과 정의 위에 나라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공평 무사하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삼하 8:15). 그 때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대상 18:13). 허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은 후 나라는 혼들렸습니다.

두 차례의 내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암살롬에 의해 일어났고,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 세바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삼하 20:1-2).

비록 암살롬의 반란도 평정되었고, 세바의 반란도 평정되었지만, 두 번째 내전 때에 세바가 한 말은 후에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왕상 12:16). 그리고 북쪽 지파들은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왕상 12:20).

## 2. 메시아의 나라 – 정의와 공의가 숨쉬는 나라

이같이 정의와 공의는 견고하고 튼튼한 나라의 기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놈물을 얹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잠 29:4). 메시아께서는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윗 왕조에서 가장 훌륭한 다윗도 실패한 정의와 공의였지만, 메시아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 1:31-33).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마 4:13). 이로써 메시아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마 4:14-16).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9 장에 나옵니다.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사 9:1-2).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국제도로 중 하나인 해변 길(Via Maris)이 지나는 곳입니다. 해변 길은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지중해 해변을 거쳐 쭉 올라오다가 갈멜산에서 갈릴리 방향으로 방향을 꺾어 가버나움을 거쳐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내륙 지역의 국제 도로였던 ‘왕의 대로’보다 더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습니다. 앗수르, 바벨론 등 메소포타미아 열강들이 이집트를 정복할 때 지나갔던 도로입니다. 이 해변 길이 지나는 곳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있었기 때문에 두 지역이 앗수르 군대로부터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흑암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현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가장 먼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5).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악을 벼리고 새 마음을 먹고 새 뜻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벼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겔 18:31). 회개하지 않으면 죽고 망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3).

회개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교회는 회개한 사람에게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 2:38).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승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 3.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전도하면서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도대체 불의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궤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도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하면 안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행 26:20). 바울은 회개하라고 전파했을 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파했습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전하였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21).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마 21:43).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농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사 5:2).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 뿐이었습니다. 시어서 먹을 수도 없고 악취 나는 변질된 포도 뿐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고, 좋은 포도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사 5:7).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람을 받은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마 7:19).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와 같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